

한라시론



민 무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지구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과 기후변화

저녁 8시, 1년 중 딱 10분간 소등을 하는 날이 왔다.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1970년 4월 미국에서 처음 기념한 이래 51번째를 맞이했다. 다른 생물 종과 함께 살고 있음을 망각하고 인간 중심의 자연개발로 인해 지구의 생태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날이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도내 35개 기관, 단체가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선언식을 하며 기념주년을 시작했다.

젠더이슈와 밀접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많은 재난 관련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와 문화적 역할제약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고, 식량안보, 감염병, 정신장애, 산모와 태아건강의 위험 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의 성별화된 취약성(Gendered Vulnerability)을 중요하게 조명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산업과 에너지개발의 주 참여자가 남성인 탓에 이러한 젠더이슈는 방치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재난연감을 발행하지만 그 안에 성별 통계가 없어 기후변화로 인한 성별화된 취약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성의 재난취약성과 반대로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생태적 삶의 방식에 친화적인 여성의 자질(virtue)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덕목으로 중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도나 캄보디아, 수단 등 여러 국가에서 여성의 임파워

먼트 프로젝트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가 함께 맞물려 여성의 자립을 이루고 젠더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여성의 지도력으로 전면적인 생태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 파리가 있다. 2014년에 여성 최초로 파리 시장이 되었고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는 탄소감축을 위해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을 감행하고 있다. 시내 전역 30km 자동차 속도제한, 도시숲 조성, 노상주차장 면적 절반 줄이기, 자전거도로·보도·녹도 조성, 집과 학교와 일터를 15분 안에 오가는 '15분 도시', 상점리제 거리의 개조계획 등이 그것이다. '생태, 연대, 건강'의 도시를 내세운 안 이달고 시장의 비전은 그동안 남성이 주도했던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지도자가 지휘봉을 가지도록써 나타난 혁명적 변화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부시장 시절 남녀평등과 도시계획분야

정무를 담당했던 그녀의 오랜 경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도의 생태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제주경제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최고이며 여성농가인구는 2019년 기준 4만1073명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여성 농업종사자는 3483명으로 전체 농업종사자 중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농어업조사, 2020).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나 심해진 미세먼지는 농사문제와 함께 야외작업시간이 긴 여성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한 해양산성화나 수온의 상승으로 인한 갯녹음 현상은 해녀들의 소득원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다.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제주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후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변화와 결단이 요구된다.

사설

대의기관 수장의 쓴소리 깊게 새겨들어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권 행보에 나선 원희룡 지사에게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 뿐만 아니라 약화일로 지역경제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좌 의장은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도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좌 의장의 쓴소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좌남수 의장은 20일 열린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좌 의장은 "지사의 대권 도전은 도민들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지금 집중하고 살피야 할 제주현안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또 코로나19 장

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도 환기시켰다. 관광을 비롯해 건설, 1차산업, 자영업 등 지역경제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 지사가 대권 행보에 나서는데 바람직하다고 애들이 비판한 것이라고 본다. 좌 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도민들은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며 원 지사의 대권 행보를 꼬집은 바 있다. 원 지사의 대권 행보는 그동안 심심찮게 입방아에 올랐다. 좌 의장만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원 지사의 대권 행보를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도정에 소홀하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실제 원 도정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지난 2월 도내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만족보다 불만족이 높았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좌 의장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편집국 25시

'양심 냉장고'의 부활을 기다리며



김 도영
편집부 기자
doyoung@ihalla.com

항하지등 따위는 없다. 안전거리에 대한 생각은 집에 두고 출발했는지 뒤쪽에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쫓아오는 운전자. 물론 다음 단계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다. 제한속도 70km 도로를 70km로 가고 있는데 경적을 울리고 상황등을 켜는 운전자.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과연 저 사람도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긴 한 걸까? 싶을 만큼 무질서한 운전자들이 곳곳에 있다. 운전 매너이기 이전에 안전의 문제다. 운전과 안전. 닮아있는 두 단어에는 간극이 있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가 원칙이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는 30km로 제한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와 교통안전이다. 제주에는 56개 구역 총 334km 구간에서 시행 중이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절실하다. '양심 냉장고'가 부활한다면 조금 더 많은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경규 씨, 부탁 드립시다.

'이경규가 간다'라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는 '양심 냉장고'라는 코너가 있었다. 카메라를 숨겨둔 도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안전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지 관찰하고 규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양심 냉장고'를 선물로 전달했다. 방송과 동시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우리는 얼마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는지, 당연해야 할 일에 왜 모두가 놀라고 감동했는지, 사회 속에 팽배했던 교통의식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운전을 하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인다. 한꺼번에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차도를 변경하는 운전자, 물론 방

뉴스-in

원희룡 도지사 사퇴시점은...

차기 대권 도전 공식화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도정질문에서 내년 제주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하고, 대선 30일 전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은 대선 때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라고 규정.

정가 관계자는 "원 지사는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부터 통과해야 한다"며 "사퇴를 전제로 대권에 도전한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경선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시기는 본인만 알 뿐"이라고 전망.

"마을 수확 일손돕기 동참을"

○제주도와 농협이 5월 마을 수확철을 앞두고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들 지원봉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호소.

도는 전광판·TV 자막 등을 통

해, 제주농협은 현수막·연론 등을 통해 마을 수확작업에 유·무상으로 참여할 인력 모집을 홍보.

농협 관계자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신청받는 동시에 도내 관공서·기업체 등 200여곳에 서한을 보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공공·민간 시너지 효과 기대

○제주시는 21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시 원도심 등 유휴공간에 문화도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시 관계자는 "도심 활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놓음 문화도시 비전"이라며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협력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

관광객 폭주... 코로나19 확진 '살얼음판'

봄 행락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 폭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지속 발생, 지역사회가 불안 초조에 휩싸여 있다. 관광지마다 관광객으로 미어터지는 판국에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방역 불감증' 사례도 계속되는 현실이다. 제주사회가 자칫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울어들 제주행 관광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성수기 만큼 폭증세다. 이동을 위해 모객하는 등의 방역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3월 기준 제주지역 항공기 이용객은 출·도착을 합해 198만2300여명을 기록, 전년 같은기간 97만여명보다 갑절이상 늘었다. 탑승률은 81%를 넘어 과거 성수기를 연상케 한다. 4월 들어서도 증가세는 여전하다. 이달 16~18일 사흘간 관광객은 하루 평균 4만명으로 모두 12만명에 달해 코로나19 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다. 최근 연이은 관광객으로 미어터지는 판국에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방역 불감증' 사례도 계속되는 현실이다. 제주사회가 자칫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 주거지를 이탈해 고발된 관광객·도민이 40명에 이른다. 더욱이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시즌 더 많은 관광객 내도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계속 키울 수 있다. 언제까지 지역사회가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것인가. 도 방역당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광객과 도민들 모두 방역의지를 다시금 바짝 다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방역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고영호(1970. 8. 13생)
최후주소: 제주시 신산로9길 18-2(일도이동)
상속인들은 2021년 10월 1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11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태양광 설치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건물(상업용)
발전사업 & 유지보수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 신제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니는봉, 사라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감귤모듬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값질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듬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